



남원 왕정동, 거동불편 어르신에 보행보조기 전달

남원시 왕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정근, 방미자 동장)에서는 최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43명에게 보행보조기를 전달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을 받은 김모임은 "평소 무릎이 아파 걷지를 못했는데 보행보조기를 지원해줘서 너무 기쁘다. 항상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이정근 위원장은 "보행보조기를 지원받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외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미자 왕정동장은 "앞으로도 민간의 소중·협력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경찰, 실종 치매어르신 발견 유공자 감사장

임실경찰서(서장 이인영)는 최근 실종 치매노인 발견에 유공이 있는 오수면 오동마을 리장에 대하여 감사장을 전달했다.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오수지구대에서는 평소 치매를 앓고 있던 권OO(여, 78세)이 남편과 함께 병원을 방문한 뒤 남편이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는 사이에 불상지로 사라졌다. 가족들의 신고를 접수 후, 즉시 임실군 관제센터와 협조하여 CCTV 추적을 통해 대상자 동선을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 마을 이장과 주민들을 상대로 치매 어르신의 외모 등 인적사항을 홍보하며 수색 중, 오동마을 리장에서부터 실종자와 비슷한 할머니를 보호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해 발견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김제경찰, 실종 발견·예방 위한 사전지문등록 실시

김제경찰서(서장 김상형)는 최근 관내 요양원을 찾아 사회약자 보호를 위하여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홍보하고 노인 대상으로 사전등록을 실시 하였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실종예방을 목적으로 2012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연령불문), 치매노인등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동의하에 사전에 수집한 얼굴사진, 지문 기타 특성을 저장하여 아동이 실종될 경우 저장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홍보는 치매노인들이 길을 잃어 버릴 경우에 대한 대처 및 방법 등을 노인들이 쉽게 알아 들을수 있도록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임실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진행

임실군이 지난 2월부터 13일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프로그램을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 사실과 관련된 문제를 국내외로 알리고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기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이에 군은 일제 강점기 위안부 문제를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리고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하여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임실지역 청소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편지쓰기, 위안부 피해자 다큐멘터리 시청, 태극기 바람개비 제작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이 이루어졌다. 청소년들이 정성을 담아 작성한 마음의 편지는 할머니들이 계신 나눔의 집(경기도 광주시)에 우편 발송했다. 또한 태극 모양 바람개비는 이달 말까지 청소년문화의 집에 전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3단계로 진행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원수 제한, 방역 수칙 및 거리두기를 준수한 채 실시되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운봉읍, 제36회 황산대첩 현화식 거행

십승지(十勝地)의 고장 남원시 운봉읍에서는 지난 15일 제36회 황산대첩 현화식을 거행하였다. 이곳에서는 고려 말 우왕 6년(1380) 왜구의 침범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성계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황산에서 왜장 이지발도가 이끄는 왜군 20만 명과 치열한 전투 끝에 대승을 거두었다. 황산대첩비지는 국가적으로 귀중한 전승사적지이며, 고려 시대 4대 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고이 간직할 곳으로 황산



대첩의 위적(偉績)을 기념하고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여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고취하고자 2년마다 광복절에 황산대첩을 재연하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다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축제는 개최하지 않고 현화식만 축소 진행하였다. 운봉읍장회 김중열 회장은 "고장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는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군, 아산초등학교 학생 대상 지질체험교육 운영 ‘성료’

고창군이 아산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하는 지질교육을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아산초는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의 지오스쿨(Geo-School) 협력 기관이다. 아산초 아이들은 지역 지질명소인 병바위, 운곡습지, 깎배센터에서 지질체험교육을 수료했다. 또 고창지역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해 병바위 해설 영상물 촬영하고, 편집작업까지 참여하며 북북투는 감각을 뽐냈다.



참여한 학생들은 "영상 촬영이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하다 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병바위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됐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지질체험교육 프로그램은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지질학을 체험교육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고창지역의 지질과 지질명소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미래세대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소방서, 소방차량 등속 출동 체험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최근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매일 실시되는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차량에 대한 자발적인 피양 유도를 통해 골든타임 확보와 군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실제 출동과 같이 경광등과 사이렌을 취명하며 실시된다. 특히, 이번 훈련은 관내 초·중학생 3명이 소방차량에 함께 동승하여 긴급 출동 중 발생하는 출동 장애요인을 직접 체험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 /순창=이양원기자



임실 지사면, 활기 충전 '주민자치 프로그램' 재개

지사면이 지난달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용래)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주민자치 프로그램 재개강을 결정하고, 현재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호응이 좋은 노래교실, 에어로빅, 게이트볼, 발마사지 4개 과정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최용래 주민자치위원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송기찬 지사면장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삶의 활기를 찾고 힐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 물놀이 위험지역 순찰

남원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의소대)는 광복절 연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순찰을 실시했다. 최근 청정 남원지역 계곡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 인파가 늘어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에 있어 선제적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의소대는 산내면 뱀사골일원과 산동면 고소바위, 북지골계곡등을 대상으로 수난 구조장비점검, 물놀이 위험지역 물놀이 금지 계도활동 등 위험지역을 꼼꼼히 순찰하여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피서객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